

# 고환율·고유가 '최고 수혜주'

## 株라큘라의 종목

### 이수화학

韓·中서 LAB 연 28만톤 생산  
글로벌 시장 4위, 점유율 7%  
하반기 영업실적 224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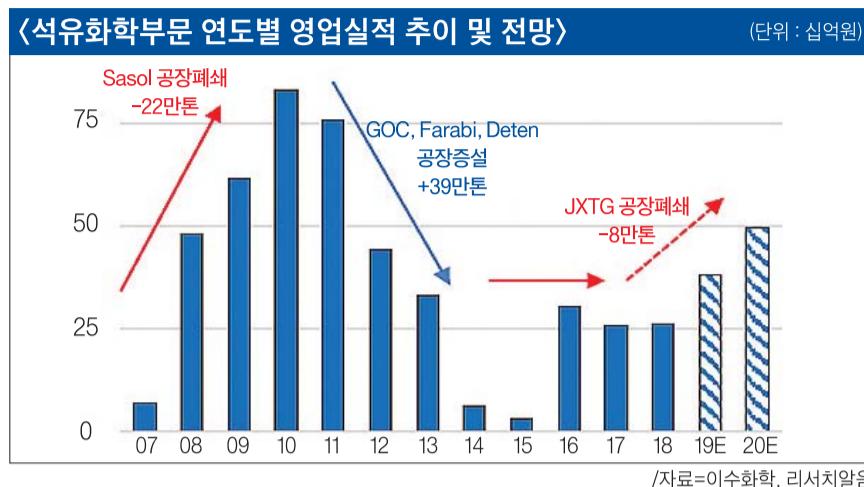
"석유화학 부문 수익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글로벌 공급량, 유가, 환율로 구분할 수 있다.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미·중간의 무역분쟁 완화 시 유가 상승까지 예상돼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은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2일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이수화학'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수화학은 1969년 설립된 석유화학 업체로 주사업은 벤젠과 등유를 원재료로 리니어알킬벤젠 (Linear Alkyl Benzene), 노말파라핀 (Normal Paraffin)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부문이다. 주요 제품인 세탁제의 원료가 되는 연성알킬벤젠(LAB)과 LAB의 원료가 되는 NP는 세척력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각종 세탁제의 필수 첨가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수화학은 연간 28만톤(국내 18만톤, 중국 10만톤)의 LAB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7%)를 기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LAB은 NP와 벤젠을 약 7대 3의 비율로 혼합해 제조하는데 회사는 LAB 생산을 위해 연간 22만톤의 NP를 등유에서 추출하고 있다"면서 "NP 추출과정에서 정제된 등유는 다시 국내 정유업체(S-oil)로 재판매되고 있으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실적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글로벌 LAB 공급량과 유가, 환율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글로벌 LAB 공급량'을 꼽는다.

최 연구원은 "전 세계 LAB 수요는 연간 400만톤 규모로 매년 2%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쟁 업체들의 생산능력(CAPA) 증설 및 공장 폐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5월 일본 석유화학업체 JXTG 가 연 8만톤 규모의 LAB 생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하반기 본격적인 LAB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사우디가 증설하고 있는 공장도 2020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와 환율도 안정적이다. 7, 8월 국제유가 두바이유는 배럴당 50~6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도 평균 1190.82원으로 전년 동기(1121.98원)

대비 6.1% 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다.

리서치알은 이수화학의 하반기 영업실적은 224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될 것으로 봤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4% 늘어난 8508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건설 부문 텐아라운드와 더불어 석유화학 부문 시황개선이 실적 성장을 이끌 전망"이라면서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석유화학 부문의 수출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활률 기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 부문의 영업적자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올 하반기에도 이수화학의 바이오 부문 자회사 이수앱시스는 70억원의 영업적자를 예상했다.

아울러 2020년 영업이익은 481억원으로 올해 실적 예상치보다 49.8%의 고속 성장을 예상했다.

리서치알은 이수화학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1만6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 65.1% 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사 신입·경력 채용시즌 본격 돌입

### 삼성증권

해외 석·박사 대상 원서 접수

### 키움증권

해외주식거래 확장… 규모 늘려

### 한국투자증권

최대 100명, 경력직 수시채용

국내 증권사들이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이해 신입, 경력사원을 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규모, 세부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증권사 규모가 점점 커지는 동시에 사업확장도 다양해지고 있어 예년보다 채용규모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해외 석·박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채용부문은 IB(기업금융), 운용(주식·대체투자), 데이터분석, 정보기술(IT) 등이며 오는 15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대졸공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더큰규모의 하반기 공채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일정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키움증권도 매년 하반기 10~20명 내외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하반기에만 해당 규모로 채용을 진행해오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채용을 진행하며 규모를 전년보다 늘렸다. 해외주식 거래 등 신규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어 관련 인재도 적극 총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도 하반기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지점·본사 영업, 리서치, 운용 등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약 90~100여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이다.

그 외의 증권사들도 신입공채를 검토중이거나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공채모집보다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인재를 총원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며 "현재 대규모 정기공채보다는 수시공채 활성화를 통해 인력총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올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승인되며 조직이 커지면서 인력이 꾸준히 필요한 상태다. 기존까지는 경력직 위주로만 인력을 채용해 왔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기존에도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인력을 채워왔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경우 부서에서 직접 공고하고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인원을 뽑는다"며 "올 상반기 200명 이상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충분히 그 이상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은 지난해 신입공채 17명을 뽑은데 이어 올해는 분기별로 30명씩, 총 60명의 직원을 뽑았다. 경력직의 경우 수시채용으로 인원을 충원하며 하반기 공채 관련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다.

현대차증권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올해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게 뽑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기준으로 약 50명의 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사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춘다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30일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상장특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기업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다른 심사청구기업에 우선해

심사하고, 상장요건 일부 완화 및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일반기업(45 영업일) 대비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해(30 영업일 내외)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충실히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인 전문 평가기관 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소재·부품 평가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체윤정 기자 echo@

## 하반기 신작 앞둔 게임주에 주목

### 엔씨소프트 '리니지2M' 공개

4분기 게임 성수기… 이용자 ↑

증권가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며, 하반기 신작 발표를 앞둔 게임주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또한 업종의 최선호주(톱픽)로 오는 5일 미디어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리니지2M'를 공개할 예정인 엔씨소프트를 들고 있다.

게임주 주가는 경기의 영향보다는 신작 출시, 실적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대외적 요인에 의한 시장 불확실성에 영향을 덜 받아 방어

주로 꼽히고 있다.

증권가에서 게임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4분기 게임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며, 하반기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야외활동이 줄어 들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증가해 전통적인 성수기로 분류된다.

또 신작 출시도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슨이 '바람의 나라' 모바일 버전인 '바람의 나라:연'을 조만간 선보이고, 11월 'V4'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및 'A3: Still Alive', 카카오게임즈의 '탈빛나기' 등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체윤정 기자

## 증권 디아제스트



### 하나금융투자

인터파크와 도서 제휴

하나금융투자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인터파크와 '주체맞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체맞은 이벤트'는 독서의 계절인 9월을 맞아 '주식도 사고 책도 사고'라는 슬로건으로 하나금융투자와 온라인 도서의 강자인 인터파크가 준비한 도서제휴 이벤트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1000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1주라도 거래하면, 인터파크 도서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첫 거래 후 다음 2달 동안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추가 도서상품권을 매달 5천원씩 총 1만원을 더 준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진행한다.

### 한화투자증권

신규·휴면고객 이벤트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규고객 더블업 대잔치 이벤트'와 '휴면고객 재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생애 최초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모바일 국내주식 위탁 수수료가 5년간 면제 된다. 우선 비대면 신규고객 더블업 대잔치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투자지원금, 신용·담보대출금리 할인, 주식입고지원금, 월간 경품 추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지원금은 계좌개설 시 현금 2만원과 펀드 쿠폰 2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김유진 기자